

# 10대 여성들의 성산업 유입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민가영/매매춘 해결을 위한 연구회 연구원

**사** 회적으로 성산업에 유입되는 10대 여성들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비난, 혹은 동정으로 — 압축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의 성문화나 산업화된 성매매구조를 탓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의 빠짐없이 무절제한 소비욕구로 인해 '자발적'으로 걸어들어가는 무모한 10대, 혹은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생각없는 10대들에 관한 이야기가 덧붙여진다. '과연 그러할까?' 라는 이들의 자발성에 관한 의문을 갖고서 10대 여성의 성산업 유입상태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나는 직접 이들과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들과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드러나게 된 성산업 유입 조건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을 띄고 있었다. 이것은 성산업의 확대, 중간매개자들의 다양화로 인해 10대 여성들이 그만큼 성산업에 접근 가능성이 증가된 것, 어린 여성의 성을 수요하는 우리 사회 남성중심적 성문화, 그리고 10대 여성들의 변화되고 있는 성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김강자 서장의 미성년 매매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성년 매매춘의 현실이 이제서야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특정 지역의 사창가, 단란주점 등과 같은 곳에서만 성적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다.

10대 여성들은 사창가, 단란주점뿐만 아니라 전화방, 채팅, 길거리에서의 헌팅을 통한 원조교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의 성산업 유입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인신 매매적이지는 않다. 아이들은 생활정보지를 보거나 벽에 붙은 광고를 통해 스스로 찾아가기도 한다.

내가 만난 아이들은 대개 처음 자신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 때문이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막상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적행위의 요구와 이들을 움짱달싸도 못하게 만드는 빛에 의해 고소득의 환상이 깨지면서 이들은 당혹감을 느낀다. 인터뷰에 응했던 이들 중 일을 중단한 아이들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으로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래저래 자신만 믿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세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내용을 누군가 말해줬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들의 말은 성산업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성적으로 무절제한 10대 여성의 '자발성'이 있다기 보다는 그 일의 성격에 대한 무지와 거기서 비롯되는 환상이 있었던 셈이다.

언제나 그렇듯 무엇인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행해지면 그것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통제의 그물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단속의 등장, 확산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꾸어가고 있는 성산업의 현실을 볼 때 탄력적인 단속의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이들을 단순히 일탈자로 낙인찍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기존의 틀' 안에만 가져다 놓으려는 선도, 계몽차원의 시각에 대해 모두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문제를 유발한 것은 '틀'을 벗어난 이들에게 있다기 보다는 '기존의 틀' 자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